



2011년 보험산업 투자수익률 3.6% 기록

왕양비 연구원

- 2011년 중국 보험산업 투자수익률은 3.6%로 2005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으며, 이처럼 낮은 투자 수익률이 2011년 보험산업 실적부진의 원인 중의 하나인 것으로 분석됨.
 - 2005~2010년간 중국 보험산업 투자수익률은 6%에 달하였으나, 2011년 중국 증시와 채권시장 부진으로 수익률이 3.6%로 하락함.
 - 2011년 중국 주가지수는 24% 하락했으며, 채권지수도 2011년 1/4~3/4분기 동안 1.9% 하락함.
 - 2011년 주요 은행 상품의 연평균 수익률이 3~7%로 나타났고, 은행예금이자율도 3.5%를 기록함에 따라 업권 간 수익률의 차이가 사라짐.
 - 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11년 1~11월 전체 보험산업 수입보험료가 1조 3,258억 위안(약 2,099억 달러)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.4%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, 지급보험금은 3,514억 위안(약 556억 달러)으로 2010년에 비해 24.9% 증가함.
- 수입보험료 하락과 지급보험금 증가에 따라 일부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이 2011년 초에 비해 60%p 이상 하락했으며, 이에 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2012년 리스크관리를 위한 시장 감독 및 퇴출 체계의 제도화가 시급하다고 발표함.
 - 2011년 11월까지 중국 보험시장은 중국계 보험회사 146개, 외자계 보험회사 54개로 이루어진 거대 시장으로 성장하였으나, 보험시장의 퇴출 체계가 여전히 미비하고 경영이 악화된 회사에 대한 파산 기준도 없는 상황임.
- 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12년 은행 재테크 상품의 예상 수익률이 하락할 경우에도 보험상품 수익률이 5%를 달성하기가 힘들 것으로 매출부진이 지속될 전망이다.

(신랑 재경, 중국증권보, 1/11 등)